

## 개회사



###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우리는 기자'

세계 각국에서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하여주시는 기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6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88개 언론사 1만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기자협회가 세계 평화와 언론 발전 도모를 위해 주최하기 시작한 세계기자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지난 7년간 전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줌으로써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Fake News', '코로나19'를 비롯해, 올해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 언론인들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모였지만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드리며 올해의 소중한 경험들을 동료 기자들과 자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시간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